

영원한 갈증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성경말씀: 요4:1-26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갈증이 있다. 그래서 다 자기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개발하고 추구하며 살아간다. 돈, 명예, 지위, 여자, 게임, 도박, 마약, 술 인터넷 등, 중독이 될 정도로 심취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인문학이 뜨고 있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을 돕는 책들, 좋은 인문 고전 책들이 많다.

그 책들이 주는 결론: 돈과 물질과 탐욕만으로는 사람의 내면의 만족시킬 수 없다: 좋은 진단 자제하고 살라는 보편적 진리는 가르쳐 주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보려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속12:1에 있듯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있기에 영원의 문제, 영원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한다. 오직 성경만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 준다. <영원한 갈증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개요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간다.

요3의 니고데모와 요4의 수가성 여인:

남자와 여자, 유대인/사마리아인, 도덕적 인간/비도덕적 인간, 지식인/비지식인, 명예,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 밤에/낮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잘 아는 사람, 주님과 대화하면서 반론을 펴지 않는 자와 적극적으로 펴는 자, 대화의 주제: 하나님의 왕국, 물 마시는 이야기
공통점: 무언가 갈증이 있다. 세상에서 만족이 없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말을 들을 때 변화가 생긴다. 우리는 어떤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상대방의 필요를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으로 사영리를 이야기하고 영접기도 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또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마리아 통과 이야기

예수님의 유대 지방 사역이 커지자 반대가 심하게 되어 그분은 고향인 갈릴리로 되돌아가심(1-3). 이스라엘: 남쪽 유대, 중간 사마리아, 맨 위에 이방 민족들의 영토와 가까운 갈릴리(한영16, 스40)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왼쪽으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오른쪽으로 여러고로 내려가 요르단을 건너 페레아 지방을 거쳐 위로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방법,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 유대인들은 첫째나 둘째 방법을 택하고 특히 둘째 방법을 선호하였다. 이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는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나중에 지역 이름이 됨, 패역한 왕들의 통치가 이어지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시리아의 살만에셀에 의해 정복됨, 대부분이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의 여러 지방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혼혈족이 생겨남.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계보를 밝힐 수 없으므로 유대인들이 배척하므로 그리심 산에 따로 제단을 만들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님. 개/돼지처럼 여김.

그래서 힘들어도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시간과 경비를 배나 들여 다른 길로 다님.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을 만나야 하는 책무가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오셨다(3-4).

예수님의 복음은 인종과 배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인천, 서울, 전라도, 경상도, 북한, 중국,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다.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부류인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요 창녀와 다름없는 여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함.

(*)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의 영혼의 갈망을 아신다(요2:24). 누구든지 반응하면 받아주신다. 드디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도시에 들어가심: 이곳은 예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의 평야 지역,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같은 지도의 사마리아 바로 밑에 세겜, 수가, 그리심)

예수님의 상태: 여행에 지치심(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할 기회가 올 때에 기회를 잃지 않음. 우리도 종종 지칠 때가 있다. 힘들 때가 있다. 이번 미국 여행을 하면서 몸도 아프고 힘들어서 쉬고 싶다. 욥의 경우 “내가 바답니까? 고래입니까?”(욥7:12) 그럼에도 또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6절에 보니 시간은 6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보면 낮 12시이다. 창24:11처럼 대부분의 여인들이 저녁에 선선한 대에 물을 길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원치 않았다. 자기의 신분, 사람들의 눈총

1. 내게 마실 물을 달라(7절), 어찌 유대인이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9절), 노골적인 불만 표시
2.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네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10절)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가? 선물은 말 그대로 아무 일을 안 해도윗사람이 사랑으로 거저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의 선물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롬6: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은 이 선물을 아는가?
 이것은 거저 얻는 것이다. 이 세상의 종교는 선한 행위를 통해 영원한 것을 얻는 시스템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롬3:20, 23-24, 28). 롬4:4-5 설명
 성경을 마치면서 계시록에서 한 번 더 강조한다(계22:17).
 그런데 거저 얻는 하나님의 이 선물은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분을 아는 데서 나온다.
 요17:3, “나를 아느냐?”
여기 앉은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가? 그 선물을 주시는 성경의 예수님을 아는가?
 그분이 살아 있는 물을 주신다.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키는 물을 주신다.
3. 여자의 도전: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느냐?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냐?(11-12)
 - a. 본성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것을, 영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땅의 것만 이야기한다. 니고데모와 같다. “다시 태어 나야한다.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가?”(요3:3-4)
 본성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이 열리기 전까지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음으로 보인다.
 - b. 그리고 이 여인은 육신의 자랑을 늘어놓는다. “우리 조상이 야곱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이 대단합니다.”
4. 예수님의 설명: 우물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13-14).
 가장 존귀하고 큰 영예를 얻은 왕, 솔로몬, 부귀영화를 다 누렸으나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그가 한 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어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한다(전1:14; 2:9-11).
 그가 누린 모든 영화가 들의 백합의 아름다움보다 못하다(마6:28-29).
 “잘 들어라. 나는 한 잔의 물이 아니라 우물 자체를 주겠다. 영존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인문 고전과 성인들이 주는 것은 한 잔의 물이다. 곧 다시 목이 마른다. 영원한 혼인 사람의 갈증은 인간의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우물이 통째로 주어져야 한다.
5. 여자가 기회를 잡았다(15).
 지혜로운 자는 기회를 잘 포착한다. 가난하고 영과 육이 피폐하였지만 이 여인도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 구원은 오직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6. 영생은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16).
 “남편을 데려 와라.”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고 다만 죄 문제를 짚어야 영생이 가능함을 보려 주셨다.
7. 여자의 솔직한 반응과 예수님의 죄 확증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17). 네게 남편 다섯이...(17-18).
 우리 주님은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올 때 우리의 죄를 확증해 주시고 용서하신다.

“그래, 너의 문제는 바로 죄에 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막2:17)

8. 여인이 이 문제를 피하려고 다른 문제로 화제를 돌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수법, 세종대왕, 이순신 어떻게 어디서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20)

예수님의 대답(21-24):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한다.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서만 난다(22). 유대인이 아닌 다른 구원자는 강도요 도둑이다(부처, 소크라테스, 조셉 스미스, 이만희, 안상홍 등).

또한 이제는 시간, 장소를 따지는 때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물질로 그분을 사려고 하지 말라.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9. 여인의 마지막 도망치기: 나중에 합시다. 메시아가 오시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25).

10. 예수님의 답변: “내가 곧 그 메시아니라.” 네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드디어 여인이 고통한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얻었다.

바로 그분에게 와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강조한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롬8:1-2)

11. 메시아를 알게 된 여인의 반응(28-29)

그전까지 여인의 관심사는 오직 물과 물 향아리였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 물 향아리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세상의 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생기게 되었다. 자기 동네에 가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

결론

인생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가?

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와야 한다. 물과 양식을 찾으러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이 물과 양식은 물질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요5:39

요6:27-29, 35, 54-56, 63

원래는 I am이다. he는 원어에 없다. 영어로 이탤릭이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누구라고 할까요. I AM THAT I AM. I AM.(출3:14)

성경의 예수님은 구약의 I AM 즉 스스로 계신 그분, 곧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다.